

지면안내

02
보도

상반기 감사결과 주의 조치 42배 증가...
세칙 변경 등으로 회계일선 혼란이 주원인

03
사회

오도 가도 못하는 강사법,
고스란히 학생들 피해 이어져

04
문화

대화가 굿즈 전성시대,
트렌디를 향유하다

06
학술

영속을 꿈꾼 '하나의 중국',
대륙 위에 흩어진 갈등의 조각

개강파티, 2학기 시작 알려



▲학생들이 상상관 지하 2층에 마련된 부스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지난 9월 4일부터 5일까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주도 하에 교내 전역에서 '2019학년도 2학기 개강파티'가 개최됐다. 본 행사는 올해 6월 '2학기 대학기판평가인증' 심사에서 인증자격을 획득한 것을 축하하고, 본교 학생들의 2학기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공연 및 기타프로그램'과 '학습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공연 및 기타프로그램으로는 ▲한성게임대회 ▲동아리 공연 ▲한성인 슈퍼스타 가요제 ▲초청 가수 공연 등이 마련됐다. 이중 '한성게임대회'는 학생들이 2인 1조로 팀을 이룬 뒤 카트라이더 게임에 참여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렸다. '동아리 공연'에는 교내 공연예술분과 동아리가 대거 참여함으로써 축제를 더욱 다채롭게 꾸몄다. 축제 1일차에는 ▲한음 ▲MGOP ▲왕산악 ▲들불 등의

동아리가 무대에 올랐고, 2일차에는 ▲TRIAx ▲NOD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성인 슈퍼스타 가요제'는 학생이 부른 노래를 노래방 기계로 채점하여 등수를 매겼다. 또한, 가수 황인욱을 초청하여 행사의 마지막 막을 장식했다.

학습프로그램으로는 ▲Return to Hansung ▲상상파크 및 융합프로그램 소개 ▲취업프로그램 등이 준비됐다. 'Return to Hansung'은 복학생의 학교 전반 궁금증을 해소시켜 그들의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상상파크 및 융합프로그램 소개'에서는 ▲콘텐츠 설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취업프로그램'에서는 휴업 및 진로 상담의 자리를 가졌다.

한편에서는 충주시 농산물 판매·체험부스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준비한 부스가 운영됐다. 충주시 농산물 판매·체험 부스에서는 하계 방중 농촌봉사활동이 진행됐던 충주시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할인 판매됐으며, 농산물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다. 또한, 중운위 부스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마련하여 경품 추첨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호재(무예 4)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신경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우천으로 인한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뷰티 3)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아외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더욱 축제 분위기가 살았을 것"이라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힘써주셔서 우려했던 것보다 성공적이었다"고 전했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경영학부, 수강신청 논란 관련 간담회 주최

학생 참여율 0% 기록...
간담회 진행에 어려움 겪어

경영학부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 해소하려 노력"

지난 9월 10일, 경영학부가 방중에 발생한 '경영학부 수강신청 논란'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전공과목 개설 수가 감소했다는 학생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강의 선택 폭 축소' 외에 학생들의 불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 당일에는 최강화 경영학부장 외 교수 3명과 경영학부 조교 3명, 김도희(경영 4) 경영학부 학생회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는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의견을 요청한 경영학부 조교는 "논란 발생 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수강신청 전에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고, 간담회를 방학 중에 개최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학생들이 많아 개강 후에 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중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는 대략 10명의 학생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줄은 몰랐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한, 해당 조교는 이번 수강신청에서 ▲경영학부 내 트랙 간 상호인정교과목 증대 ▲학부제 3학년 학생까지 서면신청 대상 확대를 진행해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보장하려 했다고 전했다. 트랙제 학생과 학부제 학생들이 겪는 각각의 불편함을 해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졸업에 문제를 겪는 4학년 학생들만 서면신청을 허용했으나, 트랙제의 시행으로 학사제도 변동을 겪은 학생들을 위해 3학년 학부제 학생까지 서면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최 학부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커리큘럼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행과목을 고려하다보니 강의가 한 학기에 편중되어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 듯하다"며, "이번 간담회는 수강신청이 종료돼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다. 이번 학기 말, 트랙제 시행으로 변화된 사안에 대해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다시 한 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영학 기자 mhbt0330@naver.com

동정란

오종택(기계전자공학부) 교수

오 교수는 지난 7월 4일 Croatia Zagreb에서 개최된 ICT Express Editorial Board 회의 및 시상식에서 '2019년 Best Paper Runner Up' 상을 수상했다.

바로잡습니다

9월 2일(월) 발행된 제547호 1면에 게재됐던 「학부·트랙제 병행 중 수강신청 혼란 일어... 원만한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해」 기사를 세 번째 문단 5번째 줄 '전체 78학점'을 '전체 126학점'으로 바로잡습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상한 편집인경주안 나은미 편집국장 장선아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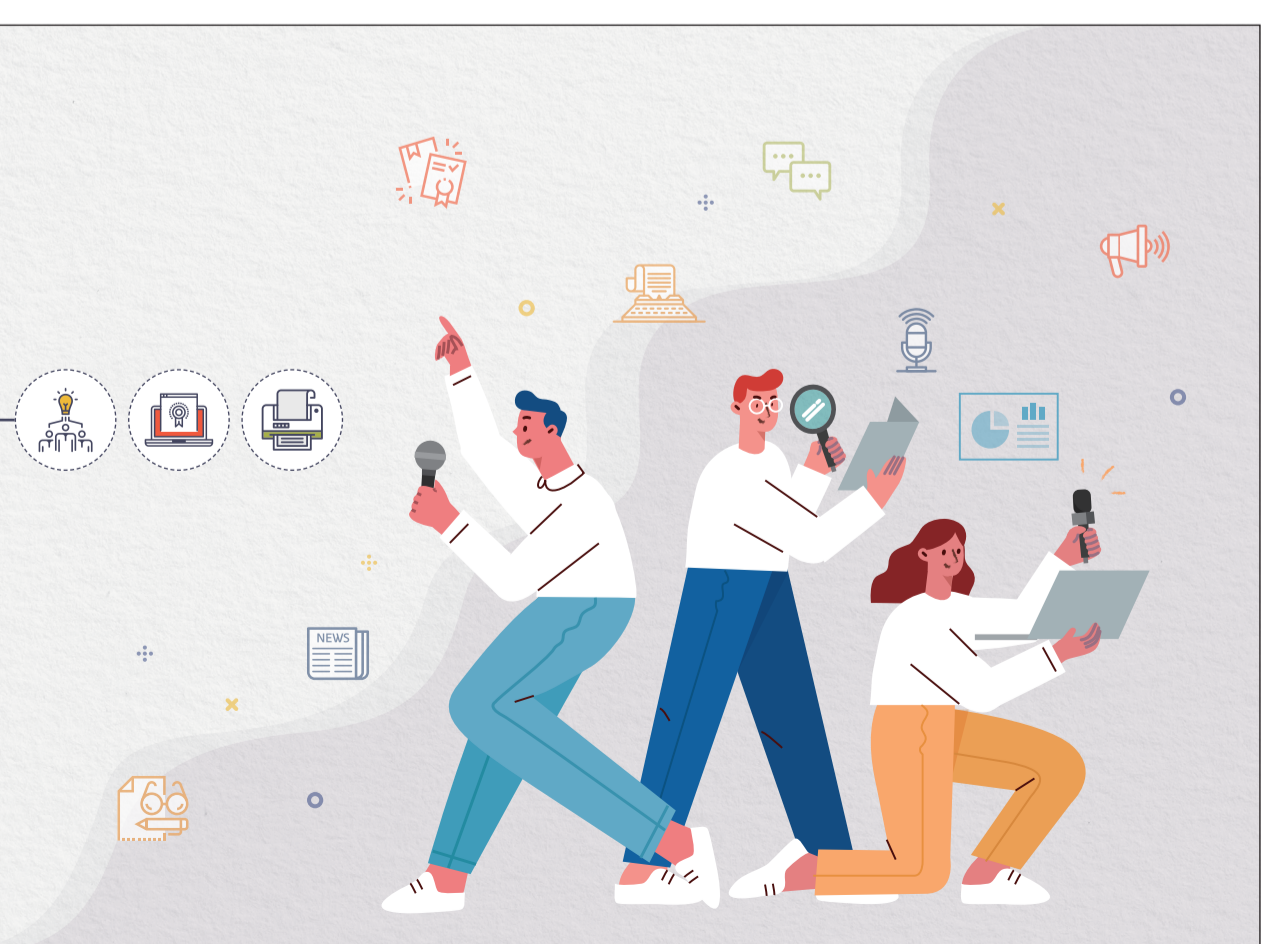
제보, 칼럼 모집

〈한성대신문〉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Tel. 02)760-4186

E-mail. hansungnews@gmail.com



상반기 감사결과 주의 조치 42배 증가... 세칙 변경 등으로 회계일선 혼란이 주원인

지난 8월 18·19일, 중앙감사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과학생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상반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환불통보와 같은 경미한 조치를 제외하고 주의 조치는 42배, 경고 조치는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회칙 중 감사 시행 세칙의 일부개정 및 감사자료 양식 변경으로 학생대표들의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총대의원회는 중운위와 확대운영위원회, 각 단위 감사담당자 및 상임위원에게 변경된 세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운위 감사결과, 총학생회는 '기간 내 자료 미제출'로 주의 1 회를 받았고, 총대의원회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학생복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기간 내 미제출 ▲감사자료 양식 미준수로 주의 4 회를, 동아리연합회는 '감사자료 양식 미준수로 주의 1 회를 받았다. 단과대학 학생회 중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은 환불통보를

상반기 감사결과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은 기구

중앙운영위원회	과학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용학과 문헌정보학과 회화과 경제학과 부동산학과 글로벌패션산업학과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ICT디자인학과 스마트경영공학부 IT융합공학부 전자정보공학과

제외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디자인대학은 ▲감사자료 양식 미준수 ▲사업계획서 기간 내 미제출로 주의 8 회를, IT공과대학은 ▲감사자료 양식 미준수 ▲자료 부족으로 주의 5 회를 통보받았다.

과학생활의 경우, 무용학과와 문헌

정보학과가 '사업계획서 기간 내 미제출'로 각각 주의 1 회와 주의 3 회를 받았다. 또한 회화과는 '감사자료 양식 미준수'로 주의 4 회를 받았다. 경제학과는 '잘못된 물품 구매'로 경고 1 회를 받았으며, 부동산학과는 ▲사업계획서 기간 내 미제출 ▲구매(후)환불 영수증 분실로 주의 2 회를 통보받았다. 글로벌패션

산업학부는 ▲감사자료 양식 미준수 ▲잘못된 물품구매로 주의 4 회와 경고 1 회 처분을 받았다.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는 ▲감사자료 양식 미준수 ▲사업계획서 기간 내 미제출 ▲감사자료 부족으로 주의 4 회를 받았다. 이밖에 ICT디자인학부는 ▲감사자료 양식 미준수 ▲영수증 미제출로 주의 2 회와 경고 1 회를

받았다. 스마트경영공학부는 '영수증 미제출'로 경고 1 회를 받았고, IT융합공학부는 ▲감사자료 양식 미준수 ▲잘못된 물품 구매 ▲영수증 미제출로 주의 2 회와 경고 2 회를 받았다. 또 전자정보공학과에게는 ▲잘못된 물품 구매 ▲세칙 상 어긋나는 행사 진행으로 학생회비 적절성 인정 불가 ▲양식 오류로 주의

1 회와 경고 2 회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의 조치 총 42 회, 경고 조치 총 8 회가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 상반기 감사결과'에서 중운위 중 디자인대학만이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은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이은미(IT응용 4) 총대의원은 "감사 OT를 통해 변경된 감사 시행 세칙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감사담당자를 위해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있는 '감사담당자 카카오톡 채팅방'도 개설했다"며 "앞으로 중앙감사위원회가 카카오톡 채팅방을 활성화해 학생 자치기구들을 감사 체제에 적응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IT공과대학 최강현(전자 4) 회장은 "세칙에 변경된 부분이 많더니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고, 이번에 바뀐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며 "2 학기 감사에서는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수민 기자
sf11228@naver.com

상상력인재학부, 상상력 토크 및 소셜데이 행사 가져

지난 9월 17일, 상상력인재학부가 미래관 DLC와 우촌관 앞 잔디광장에서 '제11회 상상력 토크(이하 상상력 토크)' 및 '제3회 소셜데이(이하 소셜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상력인재학부 학생들의 전공탐색을 돕고 학생들 간 공동체 의식과 협동적 활동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1부 상상력 토크와 2부 소셜데이로 나뉘었다.

상상력 토크에는 이상한 종장과

조세홍 교무처장, 노광현 기획처장, 서은경 상상력인재학부 학장 등이 자리해 학생들과 전공트랙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 박영숙(느티나무도서관) 관장을 초청해 '로봇 프루프(Robot-Proof)한 당신의 활약'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뤄졌다. 이외에 '상상력인재학부 홍보 UCC 콘테스트' 시상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어서 진행된 소셜데이에서는 상상력인재학부 1학년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고자, 교수 및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저녁식사 자리가 준비됐다.

서 학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했다. 상상력인재학부 1학년 학생들이 전공트랙 탐색 및 선택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개최 소감을 전했다.

정명아 기자

mhbtd0330@naver.com



▲초청강사 박영숙 관장이 상상력 토크 행사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좌)과, 소셜데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저녁식사를 위해 음식을 담고 있는 모습(우) 사진 제공 : 대외홍보팀

본교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 획득해

우리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한 2 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가장 우수한 '인증' 등급을 획득했다. 이 등급은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획득 2년 후 인증 유지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결과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되며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부여 ▲교류협력 증진 기반 구축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학생 성과의 질 보증 등의 효과가 있다.

우리학교는 평가영역과 평가부문에 모두 '충족'을 받았으며, 평가기준에서는 미흡 판정을 받은 1 개 항목을 제외하고 29개의 항목에서 '충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우리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편이 우수하다'는 호평과 '각종 학생활동에 대한 지원 체제 및 행·재정적 지원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의 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 유예 등 세 단계로 나뉜다. 또한 지표는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의 5개 평가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하위 10개의 평가부문을 가진다. 또 각 평가부문은 다시 30개의 평가기준으로 나뉜다. 각 평가 지표는 충족(P)·미흡(W)·미충족(F) 등급으로 평가되며, 이는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판정된다. 이에 대해 김미정(전략평가팀) 팀원은 "우리학교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지향해왔다. 이 덕분에 '상상력'을 축적하는 교육정책에서 성과를 보여 2주기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트랙제 전면 도입, 학생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희연 기자

heeeyun96@naver.com



▲노광현 기획처장(우)이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패(서)를 수여받은 모습 사진 제공 : 전략평가팀

대외홍보팀, 본교 공식 캐릭터 공모전 개최

오는 9월 27일까지 대외홍보팀에서 '한성대학교 공식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 공모전은 우리학교의 상징이 담긴 캐릭터를 발굴하여 대내외적인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20세 이상의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으로 지원 가능하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30점) ▲실용성(30점) ▲스토리텔링(30점) ▲대중성(10점)이다. 출품작은 1차 심사를 거친 후, 통과자에 한해 PPT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11월 29일에

최종 발표되며, 학교 홈페이지 및 수상자에게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이 선발될 계획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상장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에 대해 박윤경(대외홍보팀) 팀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본교의 색과 감성을 담은 캐릭터를 발굴하고자 했다"면서 "학생들이 느낀 우리학교를 캐릭터로 자유롭게 표현했으면 한다"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상상력교양교육원, '제12회 한성대 영상제' 작품 공모

상상력교양교육원 기초교양교육과정에서 오는 10월 6일까지 '제12회 한성대 영상제(이하 영상제)'의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 영상제는 전국의 대학생에게 영상에 대한 관심과 제작 의욕을 북돋기 위해 기획됐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 소재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자유 주제이며, 14분 이하의 영화나 영상물을 출품해야 한다. 단, 작품 출품 시 신청서와 소속 대학의 재·휴학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품된 작품은 ▲독창성 ▲오락성 ▲시사성 ▲기술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예심을 통과한 팀은 본선에서 ▲대상(1팀) ▲심사위원상(2팀) ▲참가상(7팀) 등 10팀이 선정되고, 순위에 따라 총 300만 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10개의 작품은 11월 15일 미래관 DLC에서 상영된다. 이때, 현장에서 관객상 1팀을 추가로 선정해 상금을 지급한다.

본 공모전에 대해 곽준성(기초교양교육과정) 조교는 "대학생들의 열정과 재기가 카메라를 통해 발현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heeeyun96@naver.com

10월까지 '신입생 진로 워크숍' 진행돼

취업지원팀이 오는 10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심층전공탐색을 위한 신입생 진로 워크숍(이하 신입생 진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신입생 진로 워크숍은 전공트랙 선택 및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들의 희망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본 프로그램은 회차마다 특정 학부 내에서 성격이 유사한 트랙별로 분류해 운영된다. 학생들은 열망과 재기가 카메라를 통해 발현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은 정보를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김지영(취업지원팀) 담당자는 "학생들이 전공트랙을 정하기 전에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뿐만 아니라 진로 결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신입생 진로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지급된다. 트랙별 진행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아 기자

mhbtd0330@naver.com

오도 가도 못하는 강사법, 고스란히 학생들 피해 이어져

대학의 방만한 운영과 대책 미흡... 재정 지원 통해 극복해야

지난 8월 30일, 교육부는 개정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이 적용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위 결과는 실질적인 강사 고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이전 방식과 차별을 뒀다. 다수의 학교에 동시 재직 중인 강사를 중복 집계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재직하고 있는 실제 개별 인원을 수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강사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나섰다.

갈 길 잃은 강사와 학생

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학기의 강사 재직 인원은 46,92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1,621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인원의 19.8%가 감소한 수치며, 강사 5명 중 1명이 교육현장에서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업 강사의 경우, 전체 실직한 강사 중 57.5%를 차지하는 6,6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곧바로 대학 강단 현실에 반영됐다.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번 학기를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수강신청 당일 날까지 강의계획서의 과목 담당 교수가 공석인 것을

비롯해, 개설된 강의 수가 감소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지난 7월 3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교육부 및 대학본부에 규탄하는 입장서를 밝히면서 학생 수업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학생 대의적인 총학생회가 대학본부와 '학습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

강사 내쫓는 대학의 이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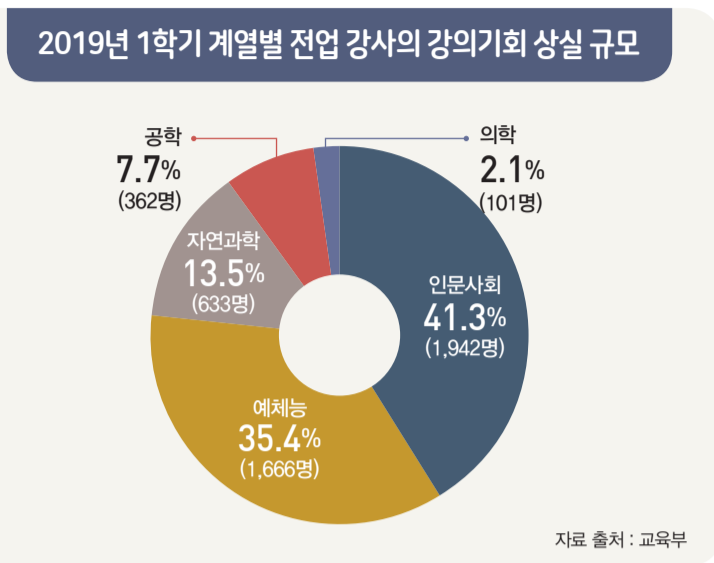
이같이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강사법은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이후 시행이 미뤄진 바 있다. 그간 4차 레나 유예된 후 올해에 들어서야 시행된 것인데, 8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대학들은 대체 무얼 한 것일까.

대학들은 그동안 '강사 해고'에만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인건비 부담 등 재정 부족을 탓하며 속칭 '배째라'식 운영을 지속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건물 매입, 캠퍼스 신설 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반면, 강사비 증액에는 인색한 태도를 보여 큰 지탄을 받았다.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들은 그동안 이월적립금(등록금과 정부지원금 등의 현금 일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끔 쌓아둔 현금)과 같은 불필요한 지출

구분	강사 재직 인원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증감율)	
	18.1학기	19.1학기	증감	증감	(증감율)
총괄	58,546	46,925	-11,621	-7,834	(-13.4%)
전업	30,204	23,523	-6,681	-4,704	(-15.6%)
비전업	28,342	23,402	-4,940	-3,130	(-11.0%)

(단위: 명)



로 비판받았다"면서 "정작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직결된 강사비는 전체 예산 총액의 5%를 넘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대학의 대처가 미흡하면서도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대학 측의 입장에 분명하다. 강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연간 최대 3,000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금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사법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재정 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

이에 교육부는 강사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 정착을 위한 대안책으로는 크게 '정책마련'과 '재정지원'이 손꼽히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이 기존 예산을 증액해 하루빨리 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이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 대학 내 강의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에게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대학평가에도 강사법의 대안책을 적용할 계획이

다. 그에 따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사보수 수준, 총 강좌 수 등의 지표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별로 강사 고용 안전성을 반영하여 '방학 중 임금예산(이하 방중임금)'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중임금이란 방학기간 중 임금을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학기 중 중간·기말고사 채점과 같은 추가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라 '방중임금'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지원금이 288억 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 연구원은 "법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는 면에서 288억 원이라는 금액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진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들의 일관된 태도와 턱없이 부족한 예산 사이에서 학생들의 속만 타지는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무너지는 '청년실신시대', 지팡이가 없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학자금 대출 등의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통칭하는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길 정도다. 청년실신은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합성어로, 일자리가 없어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하는 청년세대의 현실이 반영된 단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8%로 전년 동월 대비 0.5%p가 상승했다. 잠재구직자나 취업준비생 등을 반영한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전년도에서 1.1%p 상승한 28.3%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0대 미만 가구주의 부채는 평균 2,397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는 1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할 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을 감안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치다. 이처럼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떠안고 졸업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취업난까지 겹쳐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취업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청년실신의 주원인으로는 '교육비 증가'와 '근본적인 해결책도 미흡'이 꼽힌다. 양준석(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수요가 한정된 일자리에 몰리면서, 기업은 신입사원에게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구직 학생들 또한 높은 경력을 쌓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대학등록금뿐만 아니라 유류기간이 존재하는 자격증 및 외국어 공부 등 각종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지불하는 금액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경우, 자격 요건이 졸업생에만 제한돼, 졸업 예정자인 취업 준비생들은 어느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원기관의 종류가 한정돼 있어 신청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즉,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정책적 해결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양 교수는 "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하게 변화시킬 노력이 필요하다. 일명 '스펙 쌓기가 아닌 실무능력에 따른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빛이 있는 청년들은 이미 가정에 빛이 있을 확률이 있다. 이들을 위해 청년층에만 국한된 대책이 아닌 가계 빛 전체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부 대책도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7사건 리고 지금

윤창호법, 음주운전 줄이는 '명약'될까

지난해 9월, 故 윤창호(22) 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고인의 친구들은 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청원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 글은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와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발맞춰 발의된 것이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가법 제5조의11을 개정한 '제1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개정된 '제2 윤창호법'이 발효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사건 발생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현재, 과연 한국의 음주운전 발생률은 감소했을까?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직후에는 음주운전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특가법 개정안 시행 직후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이는 음주운전이 전년 동기과 비교해 보았을 때 27.3% 줄어든 수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직후에도 음주운전은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2개월 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19,31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에 27,93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30.9% 줄어든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발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발생 감소에 일조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규원(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 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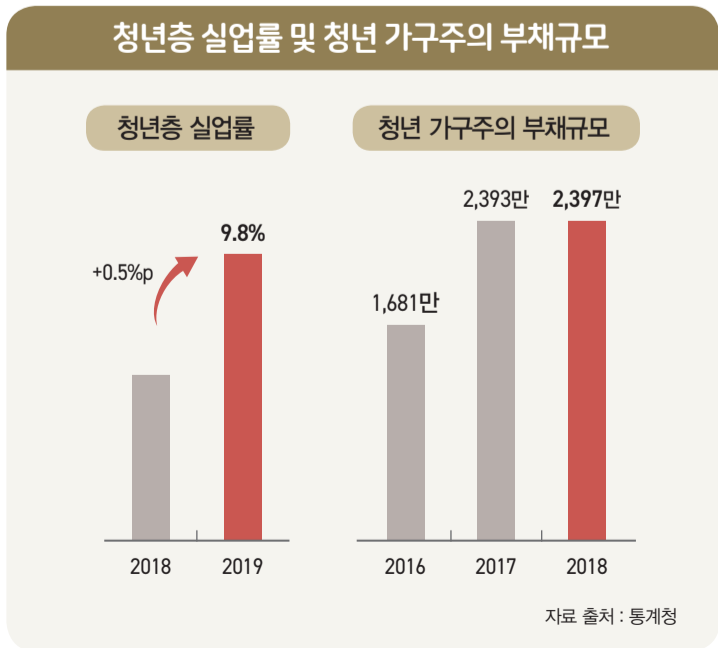
또한 <경향신문>이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음주운전 단속·사고 통계'와 앞서 언급한 하태경 의원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특가법 개정안 시행 이후 ▲12월 10,714건 ▲1월 8,644건

▲2월 8,412건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3월 10,320건 ▲4월 11,069건 ▲5월 12,018건을 기록하며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만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재상승했다. 이후 '제2 윤창호법'이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적발 건수는 다시 감소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음주운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하 의원은 "윤창호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혁명을 하자는 것"이라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나도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대학가 굿즈 전성시대, 트렌디를 향유하다

〈편집자주〉

상품 혹은 물품을 의미하는 '굿즈(Goods)'. 본래 상품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아이돌,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문화 장르의 팬덤계 전반에서 상징성을 표출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굿즈가 대학가에 녹아든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과거에는 볼펜, 노트와 같은 문구류에 한정됐지만 굿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굿즈를 만들기도 한다. 진부함을 벗고 트렌디(Trendy)를 입은 '대학교 굿즈'를 조명한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학교의 또 다른 얼굴, 굿즈

대학교 굿즈는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념품점과 같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 굿즈 시장에는 필통, 노트, 스티커 등의 문구류는 물론이고 텀블러, 담요, 파우치 등 실용성 넘치는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선택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면에 도움이 될 디퓨저를 비롯해 블루투스 스피커, 미니 가습기, 수면 안대 등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는 제품도 기념품점 한 칸에 비치돼 있다. 특히, 주변에서나 볼 법한 알치마부터 컵받침 등을 보고 있으면 그 대체로움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더 나아가 대학과 지역기업이 제휴를 맺은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부산대학교의 교표를 새겨넣은 캔들 홀더와 목걸이를 포함해, 국산 유기농 들기름과 같은 식품이 그 예시다. 이와 관련해 안지환(부산대물) 차장은 "좋은 상품이 있다면 학내 구성원들에게 소개 및 판매를 진행해 지역기업과 상생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주 고객인 내·외국인 학생들의 '트렌드'를 적용한 제품이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대학가의 굿즈 문화를 선도하는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는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은 디자인을 최대한 반영해 이들의 만족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를테면 공모전을 열어 당선된 디자인을 활용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 굿즈 관련 요청을 받기도 한다. 박경옥(이화여대 생활협동조합) 상임이사는 "과거처럼 정형화된 굿즈에서 탈피하고자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기본 색상과 디자인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도 굿즈에 대해 의뢰하는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굿즈 제작에 참여하는 형태"

라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으로 소비 형태의 변화를 수용한 굿즈도 눈에 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SNS 활용도가 높은 마스코트 캐릭터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 기념품점 관계자는 "카카오톡 캐릭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학교 마스코트 캐릭터도 SNS 시장에 진출했다"며 "이런 흐름을 의식해 마스코트 캐릭터 디자인도 조금씩 수정되었고 그에 따라 굿즈도 변화했다"고 전했다.

대학교 굿즈는 광고 및 관측활동으로서의 효과가 상당하다. 학교 입장에서 굿즈가 학교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후문이다. 이와 더불어 굿즈는 재학생들의 애교심 촉매제 역할도 한다. 박삼임(이화여대)은 "소비자들은 실용성을 새겨넣은 티셔츠를 입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자신들이 속해있는 커뮤니티 안에서의 동질감을 누리려는 것도 한몫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화여대 강아지 의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굿즈도 출시되고 있다. 대학가 굿즈계의 전통강호 이화여대는 '강아지후드티기모', '강아지이화티셔츠' 등의 상품을 내놓아 반려인들의 지갑을 열게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패딩 제품을 준비하여 그들의 겨울나기를 책임질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공식 와인

굿즈의 고급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와인은 다른 굿즈보다 사뭇 고급스러운 느낌이다. 고려대학교가 제작한 '라스토 랑데올 2016'과 '샤토 클락 2015' 와인이 있다. 두 와인 모두 프랑스산이지만 이들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라스토 랑데올 2016은 중후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남성적인 스타일인 반면, 샤토 클락 2015는 매력적이고 우아한 베리류의 과일 향과 바디감을 선사한다.

답답하면 니들이 만들던가, 그래서 만들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굿즈를 보면 자칫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교표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거나 디자인이 탐탁지 않아, 남들 앞에 내놓는 것이 꺼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학교엔 아예 기념품점도 없는데?'라며 되물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이들을 위해 학생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직접 그들 고유의 디자인을 제작한 것이다.

2019년 1학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한성대학교 굿즈동아리 'HUG'는 학교의 상징 동물인 '거북이'를 활용해 굿즈를 제작했다. 동아리를 운영했던 박건재(IT융합 2) 씨는 "우리학교의 경우 굿즈 문화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학우 몇몇이 모여 굿즈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그들은 페이스북 페이지인 '한성대학교 대나무숲'의 캐릭터 '대북이'를 활용해 굿즈를 제

작했다. 박 씨는 "학생들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교를 과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채택해 일상생활에서 써도 무방하게끔 제작했다"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키링, 핀셋지, 스티커에 집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예쁘다', '무조건 산다' 등 학생들의 긍정적인 견해를 도출해내기도 했다.

학생들이 직접 굿즈를 제작한 사례는 학교 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 학생들로 구성된 'Drsk'가 좋은 사례다. Drsk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굿즈를 제작하면서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독립적인 팀이다. 이들은 학교 내에 위치한 문화재 '명륜당'에 코백, 리유저블컵 등의 굿즈에 새겼다. 자칫 문화재라서 '울드'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옛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한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미'를 재해석해 재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단순한 판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수익금을 예비 신입생 및 입학생에게 기부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Drsk의 권휘구(성균관대 4) 학생은 "학교 공식 굿즈가 있었지만 디자인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자체적으로 굿즈 팀을 조직했다. 여기에 수익금을 바탕으로 하나의 기부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특히 2018년에는 성균관 설립 620주년을 맞아 신입생 620명에게 굿즈를 선물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구조를 '선물의 선순환'이라 칭하며, Drsk의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 하물며 날이 높아지는 인지도는 덤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대학교 굿즈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에 대해 박 상임이사는 "굿즈를 가지고 단순히 대학교를 홍보한다는 측면보다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동질감, 소속감을 함께 누리고 확인한다는 점이 대학교 굿즈의 주된 소비 이유"라고 내다봤다.

한성대학교 'HUG' 스티커 & 키링

HUG는 우리학교 대나무숲 '대북이'를 재탄생시켜 스티커를 제작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멘트를 삽입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이유 때문인지 올해 축제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았던 굿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가장 비싼 가격표를 달고 등장한 키링도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성균관대학교 'Drsk' 비천당 텀블러

성균관대 내에 위치한 '비천당'을 텀블러에 새겼다. 성균관의 건물 중 하나인 비천당은 성균관대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건물 중 하나로 이들에게 친근한 존재다. 직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단순해 보이지만 고풍스러움도 함께 잡았다. 더불어 이 텀블러를 성균관대 근처 카페에서 이용하면 500원이 할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rendy #Goods

▶한양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기념품점. 이곳에서는 대학 로고가 인쇄된 문구류부터 캐릭터 인형까지 각종 기념품 등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다.

▶고려대 내 백주년 기념상당에 위치한 크림스투어. 눈부신 조명 아래 고려대 굿즈가 눈에 띈다.

▶고려대의 상징인 호랑이가 프린팅 된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용이하다.

▶고려대가 제작한 두 와인인 보쌈, 스테이크, 바비큐 등과 잘 어울린다. 특히, 라스토 랑데올 2016(좌)은 마시기 30분 전에 개봉하면 더 좋은 맛이 난다.

▶한양대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하이리온(HY-lion)' 인형이 한쪽 벽면에 진열돼 있다. 이 인형은 한양대 굿즈 중 가장 인기 있는 굿즈 중 하나다.

▶면 소재의 강아지이화티셔츠. 이화야구점퍼와 같은 디자인으로 강아지와 커플룩을 연출할 수 있다. 사진 제공 : 이화여대 생활협동조합

▶이화여대의 교화가 새겨진 배꽃벤티. 가방이나 필통에 포인트로 장식하기 좋다. 사진 제공 : 이화여대 생활협동조합

▶리유저블컵과 키링에는 교목인 '은행나무', 성균관 설립연도인 '1398'이 새겨졌다. 사진 제공 : Drsk

▶Drsk가 제작한 텀블러. 학교 근처 카페에서 사용할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근 상권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사진 제공 : Drsk

아크릴로 제작돼 내구성 면에서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듯하다.

비단 휘장 뒤 소탈한 진심을 이야기하다

한국화가 김현정

여기, 그림 속에 다채로운 색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가 있다. 수줍은 미소와 함께 다소곳이 인사를 할 것 같았는데, 이게 웬걸.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먼지떨이를 든 채 개선장군처럼 말에 올라타 달리기도 하고, 바닥에 절뚝뚝 주저앉아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와구와구 먹기도 한다. 이 독특한 콘셉트의 여자가 등장하는 그림들은 이른바 '내송 시리즈'로, 바로 한국화가인 김현정(30) 씨의 작품이다.

사랑스러운 거짓말, 내송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김 작가는 본인의 그림 속 여자와 매우 닮아있었다. 그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했다.

“제 그림들은 기본적으로 자화상이에요. 남자나 어린아이, 노인을 그릴 수도 있지만, 작품에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 모습만 화폭에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처음부터 자화상을 그렸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화상을 그리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타인의 시선 때문에 우울증을 앓아 상담을 받아야 했어요. 치료의 일환으로 세계 상처를 준 사람을 그려야 했죠. 인물화인 만큼 모델이 필요했는데, 대학

생이다 보니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싫어하는 아이한테 가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그려야 하니 모델이 되어 달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같은 또래의 여성인 제 자신을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그림은 온전한 자화상이라고 할 수 없었다. 외형만 그의 모습일 뿐, 묘사된 인물의 행동과 내면은 타인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치료를 이어가던 중, 그는 자신의 외형과 너무도 닮은 그림 속 여자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나라고 앞뒤가 같은 사람일까? 나는 그 아이와 다른 솔직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때부터 앞뒤가 다른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타인의 시선 앞에 솔직하지 못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는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곧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내송'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송은 결국 거짓말이 표가 나기 때문에 사랑스럽기까지 하다고. 그래서 그는 그림 속의 자신을 '내송'이라 부르고, 내송이가 등장하는 그림들을 '내송 시리즈'라고 부르게 됐다.

치맛자락에 비춰진 속마음

김 작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내송'을 회화적 표현 기법을 통해 드러냈다. 내송이가 입은 한복 치마의 속이 다 비치도록 표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물의 누드를 그리고, 그 위에 수묵(연한 먹물)으로 치마를 다시 그렸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복일까? 그는 한복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옷이자 비밀스러운 옷'이라고 말했다. 비밀스러운 옷의 속을 훤히 내보임으로써 내송을 떠는 인물의 속마음이 들여다보인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또, 고상한 옷을 입고 고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내송의 이중적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편으로 작품의 소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복을 즐겨 입기도 한다.

“제 작품 중에 치마의 방향이 반대로 그려진 게 있어요. 한복을 디자인하시는 분께서 이 사실을 지적해주셨는데, 내가 그러한 소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다양하고 섬세한 표현을 위해 한복을 자주 입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에게 교복 같은 옷이 되어버렸지 뭐예요(웃음).”

대중을 향해 내민 한걸음

한편, 김 작가는 그림 작업 외에도 여러 단체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거나, 강연에 나서며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대중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다. 마음 같아서는 항상 전시회를 열고 대중들과 만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사실 사람들이 미술 전시를 자주 보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활 속 살아 숨쉬는 미술관'을 만들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종이컵에 그림이 있으면 비록 원화는 아니지만 컵을 사용하면서 작품도 감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삶에 미술이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대중과 소통하려는 그의 노력은 작품의 소재를 찾는 방법에서도 드러난다. SNS와 오프라인에서 대중들과 소통하며 소재를 얻는 것이다. 여기에는 화가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대중의 이야



사진 제공 : 김현정아트크리에이티브센터

기가 담긴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그의 소신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최근에 진행된 개인전 '계란 한 판 결혼할 나이'를 준비할 때도 대중들의 의견을 받았다. '결혼'이라는 주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 또, 작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을 들으면 미술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직접 관객에게 도슨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시장에 있는 것이 지치기는 하지만, 자신의 그림을 보고 즐거워하는

관람객을 보며 다시 그림을 그릴 힘을 얻는다고.

“음악을 잘 몰라도 즐기 위해 공연장을 가듯, 미술이 대중들에게 더 쉬운 분야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대중들과 소통을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편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자신의 작품 앞에서 작품과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현정 작가



▲〈내송 : 애국자〉, 한지 위에 수묵과 담채, 콜라주, 157×120cm, 2016



▲〈결혼: 천지차이(小)〉, 한지 위에 수묵과 담채, 콜라주, 92×190cm, 2019

김현정 작가의 작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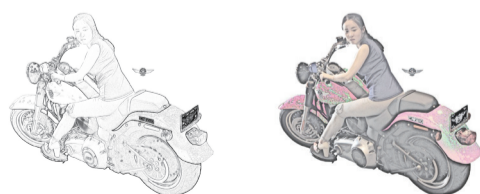
작화 제공 : 김현정아트크리에이티브센터

[1차] 작품 구상 및 크로키



작품을 구상한 뒤, 크로키 작업을 한다.

[2차] 인체 실루엣 촬영+한복 주름 촬영



인체 실루엣을 잡기 위한 1차 촬영을 진행한 후, 한복을 입고 같은 포즈로 2차 촬영을 진행한다.

[3차] 한지 스케치



화면에 한지를 붙여 인체 실루엣과 한복 주름까지 세세하게 스케치한다.

[4, 5차] 수묵과 담채로 인물 누드 표현 및 먹을 이용한 한복 표현



스케치를 한 후, 연한 먹물인 수묵과 색의 농도를 묽게 하는 담채를 활용해 채색을 한다.

[6, 7차] 배접 후 한복 저고리 색 선정



작품이 울지 않도록 종이를 여러 겹 포개어 붙이는 배접 작업을 한 후, 한복 저고리 색을 선정한다.

[8, 9차] 한지 염색 및 한복 저고리 콜라주



선정한 저고리 색으로 한지를 직접 염색한다. 염색한 한지로 한복을 콜라주한다.

완성



영속을 꿈꾼 '하나의 중국', 대륙 위에 흠어진 갈등의 조각

'홍콩인이 중국 본토의 사법기관에 인계될 수 있다'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 이른바 '홍콩 사태'가 세 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다.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국내 여론과는 달리, 중국 내부에서는 홍콩 경찰의 시위 진압을 지지하는 것과 함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중화권 출신의 한국 연예인들 역시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 국내에서 더욱 화제가 됐다. 또한 이들은 특정 기업이 홍콩, 타이완을 중국과 별도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도대체 중국인들에게 '하나의 중국'은 어떤 의미이기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걸까?

혼돈의 대륙, 분열의 서막

'하나의 중국' 개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 영토를 다스리던 청 왕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동시에 이 시기 영국이 밀수출한 아편은 청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했고, 청나라는 수차례 아편 금지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영국은 아편 판매를 단행해,

결국 1840년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아편 전쟁'이 발발했다. 1·2차에 걸친 전쟁은 청나라의 패배로 끝이 났는데, 그 결과 양국은 '청나라는 영국에게 홍콩을 영구 할양(국가의 영토 일부를 타국에 이전하는 것)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난징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청나라는 독일, 러시아 등과의 연이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일부 지역들은 99년간 조차(국가가 타국의 영토 일부를 빌려 일정 기간 통치하는 일)하는 형식으로 점령당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홍콩 인근의 땅인 신계 지역의 조차를 요구했고, 추가 침략을 우려한 중국은 1898년에 '영국에게 신계 지역을 99년 간 조차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다.

한편, 당시 청나라 내부에는 혼란이 일었다. 이에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됐고, 전국적인 봉기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1911년, 민주주의 혁명인 '신해혁명'이 일어나 청나라가 멸망하고 국민당의 쑨원을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내부 정치세력의 분열, 쑨원의 죽음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했다. 이홍규(동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는 "이때 등장한 공산당이 중화민국의 어지러운 정세를 틈타 토지개혁을 시행해 농민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세력이 급성장한 공산당이 국민들에게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대립 구도를 형성해 내전이 발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1949년,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중국 영토를 장악한 뒤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으며, 국민당 세력은 현재의 타이완 지역으로 건너가 중화민국 정부를 재구축하게 된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달

내전 직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사이에 끊임없는 군사적 대립이 일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덩샤오핑은 중화민국과의 군사적 대립을 종결하기 위해 이들의 체제를 존중하는 통일 방안을 찾자 했다. 그 방안으로 1979년에 '한 개의 국가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제시됐다.

이후 덩샤오핑이 영국에 신계 지역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하나의 중국'은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것으로, 그 외 타이완이나 홍콩, 마카오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나라이며, 분리 독립 등을 이유로 이 원칙을 깨려는 시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영국의 지배 하에서 신계 지역이 홍콩으로 흡수돼, 이 지역만 반환될 경우 홍콩은 독립된 도시로서의 기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우려한 영국은 1984년 12월에 신계 지역을 포함한 홍콩 전체를 중국에 양도하기로 하는 한편으로, 50년간 '일국양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덩샤오핑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 하에 홍콩이 반환된 지 50주년이 되는 2047년까지 홍콩에 자치적 행정권·사법권·입법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타이완과 홍콩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일국양제' 체제를 따르게 됐다.

들불처럼 번진 민주화

이렇게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 체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도 하에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리덩후이가 타이완의 총통으로 취임하면서 이것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리덩후이가 '중국어 타이완은 대등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양국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갈등인 '양안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이들의 갈등은 2000년대에 천수이비엔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천수이비엔은 타이완이 이미 독립된 국가라고 주장하며, 한 지역 한 나라를 의미하는 '일변일국(一邊一國)'론을 주장했다. 즉, 중국과 타이완은 하나의 나라지만 타이완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여전히 타이완이 중국의 지방정부에 불과하다며, 독립된 정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홍콩, 마카오와 마찬가지로 타이완의 주권도 중국에 귀속돼 있다는 것이다.

한편, 몇 년 새 빠른 속도로 성장한 중국이 타이완과의 경제 공동화를 추진하면서 양안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성(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과의 경제 공동화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타이완 청년들이 2014년 '해바라기 혁명' 등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 되어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과 홍콩은 9차례에 걸쳐 '경제인민화합협정(CEPA)' 체결을 통해 경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중국의 정치적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홍콩에서는 2014년, 행정 장관의 직선제 선출을 요구하는 '우산혁명'을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이 촉발됐다. 최근 진행된 시위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즉, 중국이 성장하면서 '일국양제'를 명분으로 홍콩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시위로 이어진 것이다.

이 교수는 이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근대에 발생했던 열강의 중국 침략과 그로 인한 중국의 분열, 세력 약화를 다시 겪지 말자는 민족주의적 공감대가 중국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체제에 대한 중국의 권위주의적 입장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일국양제'는 더욱 큰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궁금한성(性)

나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남성과 여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상에서 회원정보를 입력할 때처럼 말이다. 대다수는 아주 쉽게 선택을 하지만, 여기 한 가지만을 고르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바로 '간성(Intersex)'을 가진 사람이다. 제3의 성'이라고도 불리는 간성은 태어날 때부터 염색체·유전자·호르몬·성기 등 성을 구별하는 4가지 요소의 발현 정도가 전형적인 남성·여성과 다르게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즉, 신체적인 특징을 통해 성별을 나누는 '성별 이분법'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별은 성을 구별하는 4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그중 어떤 생식세포가 분열되는지에 따라 1차적으로 성별이 결정된다. 이때 성염색체 중 난자가 갖고 있는 X염색체와 정자의 Y염색체가 만나 XY염색체가 형성되면 남성, 난자의 X염색체와 정자의 X염색체가 만나 XX염색체를 가지면 여성이다.

그러나 'SRY 유전자'와 'DAX1 유전자'를 논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SRY 유전자는 보통 Y염색체 내에 있는 생식기능 유전자로, 남성의 고환과 전립선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즉 일반적인 남성은 Y염색체 내의 SRY 유전자를 가진다. 그러나 Y염색체를 갖고 있더라도 SRY 유전자가 없으면 겉모습은 남성이지만 여성의 생식기를 가진 채로 태어나는데, 이 경우가 바로 간성이다. DAX1 유전자는 X염색체가 갖고 있는 생식기능 유전자로 여성의 자궁과 음핵 등을 만드는데, 일반적인 여성은 2개의 DAX1 유전자를 갖고 있다. 즉, 여성의 난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DAX1 유전자 2개가 필요한데, 만약 1개가 부족하면 겉모습은 여성이지만 남성의 생식기를 가진 채 태어나 간성이 되는 것이다.

한편, 성염색체에 따라 분류되는 과정에서 간성은 약 30가지의 유전적 변이를 동반한다. 대표적으로 남성에게 주로 발병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여성에게 발병하는 '터너 증후군'이 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갖고 태어나는 성염색체 XY 한 쌍에 X염색체를 하나 이상 갖고 있는 유전병이다. 예를 들어 XXY, XXXY 등의 성염색체를 일컫는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겉모습은 남자지만 고환이 작고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자 수가 적어 남성 불임의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터너 증후군은 여성이 정상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2개의 X염색체가 부족해 발생하는 유전병을 말한다. 터너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난소의 형성이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유방 또는 자궁 등의 성기발육부전이 생기고, 2차 성징이 더디다. 특히 심장에 결함이 있거나, 신장에 이상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신체 기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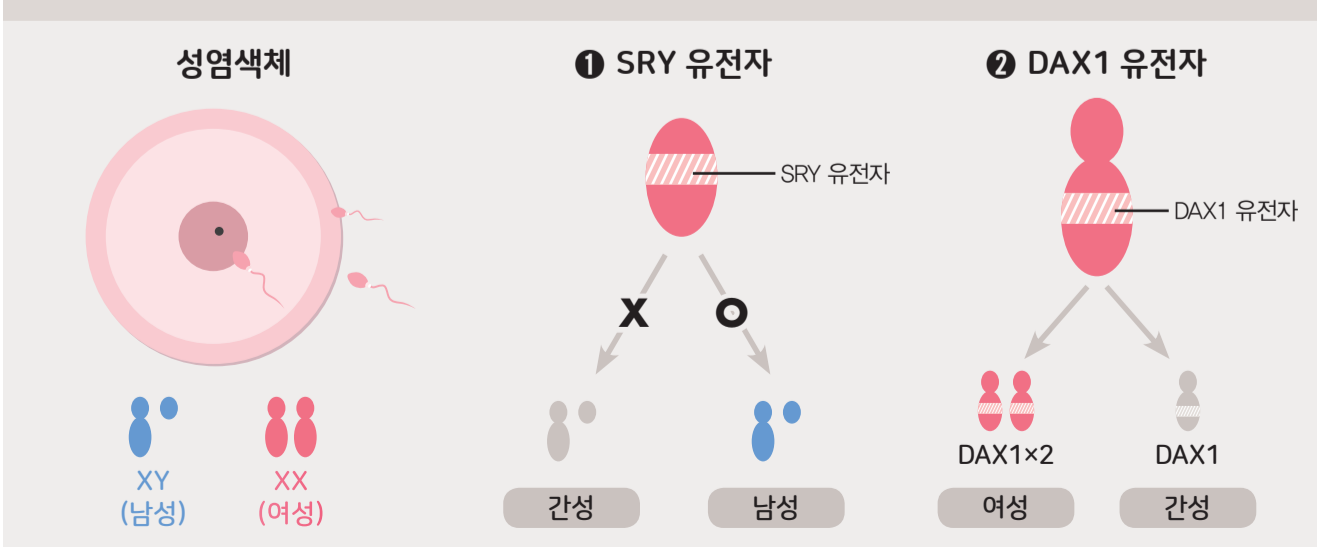
이와 같이 간성은 출생 직후에 성기 모양으로 판단되기도 하지만, 2차 성징의 과정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 알게 되거나 평생 자신이 간성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연보(성공회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간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났을 때 '모호한 성기'를 가졌다고

판단되면 부모가 성기 성형수술을 단행해 남성과 여성 둘 중 하나의 성으로 살아간다"며 "이러한 수술은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기회를 방해하며, 건강상에도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향후 성적 생활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유전자에 따라 구분되는 간성



· 삼 학 송 ·

기자과 학생 사이, 그 어딘가

오래 학보 편집일정은 고되기 마련이지 만, 이번 호는 유난히 험난했던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취재 아이템 선정할 때는 학내에 이렇다 할 일이 없어 보도 면이 소 위 '가뭄' 사태를 겪었고,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생명과도 같은 취재 기간이 축소됐다. 고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겨우 마련된 아이템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불발돼 결국 마감 직전에 아이템이 확정되는, 입사한 이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좋은 소재가 없거나 취재일정이 촉박한 경우만 학보사 기자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학보사 기자로서 겪는 고충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으뜸은 바로 취재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다. 다양한 취재원들을 만나다보면 학보사 기자를 '기자'로서 존중하고 예우를 갖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례한 발언으로 기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사람도 심심찮게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호만 해도 '본인과 인터뷰를 진행할 거면 효력이 있는 공문을 가져오라'는 취재원을 만난 기자가 있으니 말이다. 학보사 기자는 학우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자로서, 학내의 사안이라면 무엇이든 마땅히 취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물며 '한성대학교'의 일을 (한성대신문)이 취재하는데 공문이나 가져오라는 건 '넌센스'다. 또한 취재 도중 편정을 피우거나 예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취재원을 만나 속앓이를 한 기자도 있었다.

이같은 고충은 학보사 기자가 '기자'와 '학생' 모두에 발을 걸쳐놓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기자의 업무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신분에서

기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 무례한 취재원들에게 항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학보사 기자의 본분은 과연 기자인가, 학생인가? 둘 중 무엇이 우선하는 가치인가?

이 질문의 대답은 '답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대답처럼 무엇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학보사 기자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받는 기자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동시에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라는 것도 옳은 명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보사 기자는 '기자이자 학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취재할 때는 기자로서, 학업에 집중할 때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학보사 기자의 존재 이유를 짚어보게 된다. 좋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생활에만 충실한 것도 벅찬 마당에, 촉박한 편집일정 속 무례한 취재원을 만나며,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고생하는 이유 말이다. 진부한 말이지만, 그것은 바로 대학언론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 때문일 것이다. 물론 힘든 순간은 매번 신문사를 괴롭히지만, 대학언론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좋은 학교를 만들어보겠다는 사명감은 신문사를 또다시 일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늘 편집일정이 순조롭게 조율히 지나가면 좋겠지만, 이리저리 치이며 신경을 쓸 이 많은 학보사 기자의 숙명은 어찌할 수 없다. 그래도 어떻게든 일은 풀린다고 하지 않던가. 아무리 고되고 험난했다 한들, 어쨌든 우리는 이번 호도 무사히 발행했다. 이렇게 우리는 기자와 학생 사이 어딘가에서 오늘도 내일도 달린다.

장선아 편집국장

■ 의화정

요즘 개인적인 최대 고민은 학생들의 취업이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모두 있는 학과나 트랙에서 학생들이 질 좋은 취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계속되는 고민일 수밖에 없다. 대졸 취업률은 60% 초반까지 하락해 있고, 정규직 등의 취업률은 훨씬 낮은 것으로 기억된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에 다친 상황은 양질의 일자리 보다 재정을 통해서 대응되고 있다. 2018년에 워낙 취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019년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의 30%가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대응 방식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보수가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는 2018년

청년 취업, 현실과 준비

9월 이후 7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20대의 '쉬임'의 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며, 청년 확장실업률은 계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2025년경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노동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97-98%의 고용률이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먼저,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일자리가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모두 데이터와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19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해외로

빠졌거나 현업부서로 발령 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기존 산업은 빅데이터 기반 위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숙련된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다. 석사나 박사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와 모형을 접목해서 현실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빠르다거나 IT를 기반으로 한다거나 플랫폼이라고 해서 모두 혁신이 될 수 없다. 안정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혁신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것도 하나의 혁신이 될 수 있고, 기존 산업의 고용과도 연결될 수 있다.

김상봉(사회과학부 금융·데이터분석) 교수

■ 기자수첩

나는 평소 여가시간에 웹툰을 즐겨보는 편이다. 얼마 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읽을 만한 웹툰이 없나 살펴보면 중이었다. 마침 좋아하는 작가가 낸 신작이 눈에 들어왔고, 반가운 마음으로 해당 웹툰을 정독하기 시작했다. 웹툰은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동물을 좋아하는 나에게 다소 끔찍하게 다가오는 내용이었지만, 긴장감 넘치는 작가의 묘사에 금세 빠져들었다.

그러나, 몇 컷을 채 넘기지 못하고 등장 인물들의 대사에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고양이가 갈기갈기 찢겨 죽어나간 일에 대해 동네 주민이 "고양이가 죽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인간을 겨냥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사건을 수사하자는 말에 경찰이 "옆동네 사건으로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고양이 때문에 순찰을 강화

생명의 저울은 기울지 않는다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댓글창 역시 비슷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그냥 고양이 목숨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호들갑 떨지 마라", "냥빠(고양이 애호가들을 비하하는 말)들은 어린이에 마냥 감정에 호소해 동물을 우선시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댓글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나마 작중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만 말할 뿐, 한 생명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것에 의미를 두는 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같은 반응을 보며 의문이 들었다. 이들은 무슨 자격으로 생명이 "그냥"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등한시하는 것일까. 과연 인간이 이유 없이 휘두른 칼에 희생된 생명보다 우리의 편이 우선시되는 것이

이성적인 사고방식일까. 동시에, 학창시절 읽었던 소설 '곰의 제국'이 떠올랐다. 이 소설 속 인간은 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들을 위한 애완용 혹은 식용 동물로 키워진다. 이야기 속에서 인간은 곰에게 쉬이 학대받고, 살해당하고, 장난감 취급을 당하지만, 인간보호단체에 속한 곰을 제외한 어떤 곰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 세계의 '이성'이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인간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곰의 모습은, 고양이의 생명을 하찮게 바라보는 네티즌의 모습과 중첩된다. 아마도 이 소설 속에서 인간이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했다면 곰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냥 인간 죽은 게 대수라고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정명아 기자

■ 낙산에 올라

언젠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태극기의 속뜻'이라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 그 내용으로는 태극 문양의 빨강은 북한, 파랑은 남한, 태극 문양을 둘러싼 팔괘는 주변의 패권 국가인 중국·러시아·일본·미국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우스갯소리라며 웃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단순히 웃고 넘어가기에도 어폐가 있어 보인다. 한반도 정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흔들리고 난 후일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 국가들은 그들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우리와 주한미군으로 쉼하고 있고, 일본은 자신들의 법으로 명시한 자유무역을 저버리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경제제재를 선택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대만, 홍콩, 티베트 등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다.

태극기의 속뜻

이러한 충돌 지점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군가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 멀리까지 가지 않고 조선만 보더라도 북방민족과 실용외교를 하다가 전쟁까지도 가봤고, 통상사를 보낸던 일본에는 식민 지배를 당했다. 다른 나라들은 쉽게 해보지 못할 경험을 오백 년 동안 겪은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면 가슴이 답답해질 따름이다.

지금 우리에게 미국이 되었던 북한이 되었던 한 세력만을 옹호하는 게 필요한 건 아니다. 옹호한다고 해도 그 세력이 우리와 영원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외교 관계에 '영원히'라는 말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더군다나 옹호한 세력이 무관심이나 적대감을 드러냈다면 그 세력이 이익을 가져다줄 거라 기대하는 건 허상을 좇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건 실익을 챙기는 일이다.

명분과 자존심을 지키던 조선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나라를 잃는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 국격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주변국의 패권을 절묘하게 이용해서 실익을 챙기는 편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다.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자주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 사이에서 꿋꿋하게 자주적인 모습을 지켜 온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부디 이러한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시대에도 존속해 주길 바란다.

이상준(인문 2)

읽으면 보이는 초성퀴즈

- ※ 이번 신문의 주요 키워드를 담은 초성퀴즈입니다.
- ※ 정답을 아시는 분은 10월 11일(금)까지 정답양식을 작성하여 한성대신문사 카카오톡 채널(@hansungnews)로 보내주세요.
- ※ 정답자 중 5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 ※ 추첨자께서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문항1. [2면] 이번 상반기 감사결과에서는 '이것'이 일부 개정대 학생대표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인가? 답:

문항2. [3면] '윤창호법'은 의 처벌 및 단속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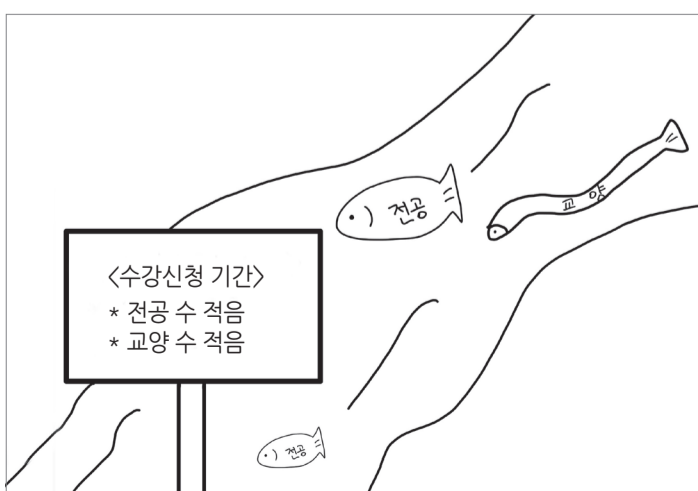
문항3. [6면] 성을 구별하는 요소의 발전정도가 전형적인 남성·여성과 다르게 태어난 사람은 를 가진 사람이다.

정답양식) 이름·학부·학과·제1트랙/학번/연락처/문항1 정답/문항2 정답/문항3 정답

지난 호 정답) ① 트랙제 ② 명절 귀향버스 ③ 아칭법 ④ 오르가슴

#낙산세컷_강의는_적고_학생들은_적고

이거엔 기자



제34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 2019. 10. 18

세 상 에
단 ,
하 나 뿐 인
당 신 의 글

모집기간 9월 16일 ~ 10월 18일
오후 6시까지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제출형식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제출방식 hansungnews@gmail.com
(e-mail로만 접수 가능)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발 포 한성대신문 551호 (12월 2일 발행)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 원 및 상패
시 : 40만 원 및 상패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10pt / 당선 80pt (가작 60pt)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장선아 편집국장 010-9786-9709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페이스북 메시지 @hansungpresscenter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한성대신문